

주일에배

오전 10:00

사회: 김 성목사

(*) 표시는 일어섭니다.

찬 양	한중사랑교회 찬양팀 / 다같이
*목상기도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 양	찬송가 64장 / 다같이
대표기도	김명옥 집사
성경봉독	잠언 4장 23절 / 사회자
설 교	“네 마음을 지키라”/ 서영희 목사
찬 양	찬송가 455장 / 다같이
함성기도	다같이
특 송	1대 3지역(주님 되신 참 포도나무)
헌 금	찬송가 50장 / 다같이
헌금기도	서영희 목사
*찬 양	부흥(이 땅의 황무함을) / 다같이
*축 도	서영희 목사
성도의 교제	새가족반수료식 / 통지 / 새신자 환영

봉사안내

	5월 6일	5월 13일	5월 20일	5월 27일
봉사	1대2지역	1대3지역	1대4지역	1대5지역
특송	1대3지역	교구장	특별팀	1대4지역
사회	김 성목사	김학수목사	이상부장로	조황주목사
기도	김명옥집사	박문실집사	전통수집사	한월순집사

수요일배, 토요성경공부

	수요일	토요일
찬양	남승명 전도사	복음영접반, 신앙기초반, 신앙확신반, 성경통독반,
설교	조황주 목사	성경연구반, 파노라마반, 큐티반, 말씀중심반

임송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알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 무명을 제외한 주일, 감사, 십일조, 절기, 기타헌금의 명단이 주보에 기재됩니다.

■ 십일조: 고인복, 김송숙, 김승옥, 김채숙₂, 김홍₁, 남상옥, 남홍자(달원), 도정분, 박문실, 박화실₁, 방영복, 변해영, 석중녀, 성순임, 양기화, 오경희, 유월선, 윤태성, 이기순, 이순희₁, 이영옥₂, 이영화₆, 이옥교, 임창옥, 장선녀, 장영순₃, 전동만, 전유림, 전홍연, 정미란₂, 최성호₂, 최차남, 하용범, 황연실

■ 감사헌금: 강강영숙₁, 광정옥, 권영순, 권옥례, 권옥춘, 권용(배혜숙), 김성, 김성도₂, 김영숙₁₆, 김영옥₈, 김영자₃₀, 김영희₈, 김옥분₈, 김용현, 김응호₁, 김의철, 김천일₃, 김춘매₁, 김춘화, 김중정, 남영현, 남홍자(달원), 류범준, 류창해, 박문실, 박문남, 박성옥₃, 박순옥₄, 박용근, 백기옥, 서영희목사, 성순임, 손명도(김연화), 안원석, 양기화, 양홍길, 엄순금, 오정근, 오정애, 유석기, 유석립, 유용녀, 윤기현, 윤일력, 이상부, 이순의₂, 이순자₂₂, 이순희₁, 이연희₂, 이영화₃, 이점수₁, 이춘란₂, 이호₂, 임경애, 임남순, 임복순, 임영애, 임홍, 장영순₃, 전복덕(정학), 전복단, 정금선₁, 정금선₂, 조영애₁, 조정숙₁, 채규범(박성업), 채영금, 채영주, 최금자₂, 최명옥₁, 최복순₃, 최영애₃, 최영애₅, 최영옥₁, 최옥금, 최옥진, 하용범, 한순금₁, 한춘화₁, 함춘자₁, 허경분, 허창송, 홍철국, 황금선₁, 황옥화

■ 선교헌금: 강은혜, 최정열

■ 구제헌금: 박문실

■ 후원(일반): 김연월, 이옥교

■ 후원(약값): 황미옥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간증) “저 자신에 대한 글” - 유월선 -

교회 주방에 들어와 일한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다.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한다. 이 사역을 해보지 않았더라면 나는 영원히 자신을 망각하고 살 것이다.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내가 충성함이 없음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이전의 분노가 그대로 남아 있음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제껏 나의 신앙생활이 헛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성수주일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말은 일 해나가고 이웃과 다투지 않고 교구 식구들 진화심방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항상 그 무엇인가 허전한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었음을 고백한다. 그러나 주방봉사 하면서 보니 신앙이란 그런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주방에 들어설 때 나의 생각은 그저 주방장과 마음을 같이하며 음식이나 하고 성도들과 다투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방일은 그것뿐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성도님들이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는 것, 남은 음식을 버리는 것, 쓰레기 분리 때 나오는 사발, 젓가락, 음식, 신발주머니 등을 버리는 것을 목격할 때마다 음성이 높아지고, 주일마다 주방봉사 교구가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큰소리 나가고 하는 이것은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으며 “부족한 나의 충성”임을 깨닫게 되었다. “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라는 말씀 속에 감추인 비밀을 오늘에야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 내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다.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새 계모와 함께 살아온 나의 마음에는 모든 것이 분노였다. 그 삶이 싫어 20살에 시집을 갔다. 그러나 그 삶은 더 힘들었다. 남편과의 삶은 말하기가 싫다. 짜증나고 서럽고 힘겨운 삶이었다. 마음속에는 더 큰 분노만 쌓였다. 짜증난 삶으로 인해 목숨을 끊으려고 생각하고 송화강에 나갔던 적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죽음이란 시련 앞에 맞서 다가오는 것은 자녀들이었다. 내가 부모 없이 자라면서 고생했는데 ‘나 하나 참으면 새끼 셋이 편하잖아!’ 하는 나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 후로 나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끊고 열심히 살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지... 이전에 내가 고향에 가면 시어머니 친구들이 나를 끌어안고 막 울었다. “니가 고생이 너무 많았다고...” 더 말하지 않겠다. → 동지연 계속

줄석연왕

지역	교구	22일	29일	지역	
1-01	101	9	7	2-07	
	102	8	11		
1-02	103	10	8	2-08	
	104	8	5		
	105	3	4		
1-03	106	6	5	2-09	
	107	4	8		
	108	9	5		
	109	6	5	2-10	
1-04	110	6	4		
	111	6	4	2-11	
	112	13	13		
1-05	113	7	7	2-12	
	114	5	10		
	115	5	5	2-13	
1-06	116	3	2		
	117	2	4	2-14	
	118	3	1		
1-07	119	7	7	2-15	
	120	5	5	2대 소	
	121	9	8		
	122	7	7	3-01	
1-08	123	10	7		
	124	4	2	3-02	
	125	11	11		
1-09	126	6	6		
	127	6	4	3-03	
	128	7	5		
1-10	129	4	7		
	130	5	4		
	131	3	4	3-04	
	132	5	6		
1-11	133	4	5	3-05	
	134	3	5		
1-12	135	9	6	3-06	
	136	8	8		
1-13	137	11	8	3-07	
	138	8	7		
	1대 소계	245	230		
2-01	201	13	9		
	202	7	9	4-01	
2-02	203	7	10		
	204	7	11		
	205	6	7	4-02	
2-03	206	10	7	3,4대	
	207	12	9	어린	
2-04	208	8	12	세신	
	209	8	10	미화	
2-05	210	9	9	소계	
	211	6	8		
2-06	212	5	4	총계	
	213	2	2		